

영화·전시·책·음악으로 기억하는 항일의 역사

문화예술계 3·1운동 100주년 광복절 뜨거운 '독립' 열기

영화 '봉오동 전투' 인기...위안부 피해자 다룬 '김복동' 선전
장준하 자서전 '돌베개' 135점 판화로 풀어낸 이동환 개인전
팸페라 가수 임형주 기념 음반...항일 투쟁 서적 출간도 봇물

다큐와 극영화, 음악 그리고 책에 이르기까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문화예술, 출판계 등에서 '독립'의 열기가 뜨겁다.

일본군과의 전투를 다룬 '봉오동 전투', 그들의 만행 '위안부'의 사실을 밝히는 '주전장',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투쟁의 기록 '김복동' 등 일제와 맞서는 영화들이 극장가에서 연일 인기를 끌고 있다.

1920년 6월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독립군의 동맹 전투를 다룬 영화 '봉오동 전투'가 연일 예매율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영화관은 '독립군의 투쟁'을 보러 온 관객으로 야간에도 붐볐다. 실존 인물의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진 황해철, 이장하 등 인물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수많은 독립군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 영화는 개봉 4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해 현재(14일 기준) 240만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영화는 민가를 습격해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죽이고, 장난치듯 민간인들을 유린하다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일본군의 만행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수적으로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일본군과 숲 속, 절벽 끝, 험준한 산비탈에서 아슬아슬하게 맞서는 긴박한 전투 장면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극에 몰입했다.

특히 수십명의 독립군이 힘을 합쳐 일본군에 반격을 가하는 결말부의 연출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으며, 뱃가루 속에 묻혀 있던 태극기를 흘날리는 장면은 '독립 투사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라는 상징성과 함께 벅찬 감동을 이끌어냈다.

영화는 각 캐릭터가 가진 저마다의 사연이 돋보였다. 일본군에게 죽은 동생을 기리는 마음부터 엄마와도 같던 누나가 남긴 당부, '어쩌다 보니' 독립군이 된 경우까지 각양각색의 사연은 '어제의 농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될 수 있다'는 작품의 큰 물줄기를 오롯이 보여줬다.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3년에 걸쳐 대한민국·미국·일본 3개국을 넘나들며 일본의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뒤에 숨은 일본 내각의 의도를 파헤친 영화 '주전장'도 광주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일본 측을 따라 한국을 비난하는 미국인 '수정주의자', '일본 회의' 대표의원,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글렌데일 전 시장 등 국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진행한 30여명의 인터뷰와 각종 자료들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논리적인 반론으로 일본 극우세력들의 주장을 파헤치고 교과서 검열, 언론 통제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덮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밝혀낸다.

1992년 국내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도 개봉 7일만에 3만7000여명의 관객수를 확보하는 등 인기를 끌며 상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 사과 촉구 운동을 해온 상징적인 인물인 김 할머니가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서 92년부터 올해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과 투쟁한 27년 동안의 여정이 담긴 영화로, 광주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영원한 광복군이자 시대의 '등불' 고(故) 장준하(1918~1975) 선생의 자전적 수기 '돌베개'의 내용을 연작 판화로 풀어



영화 '봉오동 전투'



이동환 작 '장준하'

낸 이동환(52) 작가의 개인전 '가슴에 품은 돌베개'전이 9월2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돌베개'는 장준하가 1944년 일본군을 탈출, 임시정부 광복군에 투신하기까지 6000리 대장정의 기록을 담은 책으로, 이 작가는 '돌베개'의 내용을 135점의 목판화 작품으로 풀어냈다. 전시장에 만나는 작품



임형주 임정 100주년 기념음반

들에는 일일이 연필로 책의 내용을 적어두었으며, 135점의 원판도 전시돼 있다. 문의 062-226-6677.

팸페라 테너 임형주는 15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덟번째 싱글음반 '어 뉴 로드' (A New Road·새로운 길)를 발표했다. 임형주는 "운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다큐 영화 '김복동'



'의열단 항일의 불꽃'과 '광복군 갔다고...'

길'에서 영감을 얻어 음반 제목을 붙였다"고 말했다.

음반에는 윤심덕의 '사의 찬미'가 타이틀곡으로 수록됐으며 안익태의 애국가에 앞서 임시정부 시절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Auld Lang Syne)에 가사를 붙여 불렀던 '독립군 애국가', '희망가'도 담겼다.

출판계에서도 광복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관련 책들의 출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펴낸 '의열단, 항일의 불꽃'은 창단 배경부터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렸던 의열단에 관한 기록을 담았다. 책에는 창단 당시 명시한 '죽여야 할 일곱 대상'과 '다섯 가지 파괴 대상' 부

터 일제 수탈기관 폭파, 일왕 거주지 폭탄 투척, 밀정과 변절자 암살 등 의열 투쟁의 기록과 법원의 심문조서 내용이나 재판 기록 등 세세한 정보가 담겼다.

정만진 소설가가 펴낸 '소설광복회'는 '1910년대 항일 결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활동을 다룬 작품이다. 소설은 판사 시험에 합격하지만 스승이 의병 전쟁 중 전사하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박상진과, 한국 진위대에서 복무하던 중 해산 조치로 인해 산남의진에 들어 활약하는 우재룡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광복군안영희선양사업위원회가 발간한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 주소'도 주목할 만한 책이다. 제목은 안영희 지사가 생전에 불러주곤 했다는 '광복군 아리랑'의 한 구절이다.

1925년 신의주에서 태어난 안영희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떠나 중국에서 광복군이 되었다. 그의 삶은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독립을 위해 애쓴 여성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iyoun@kwangju.co.kr



영화 '암살'

독립운동 역사·인물 재조명...지상파 3사, 임정 100주년 특집 편성

지상파 3사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을 기념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14일 소개했다.

KBS 1TV는 전날과 오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시기획 창-밀정' 1부작을 방송한다. 일본 현지에서 단독 발굴한 공문서를 토대로 밀정들의 활동상과 이들에게 배신당한 독립운동가들의 시련을 생생히 재현

한 내용이다. 광복절 오전 11시 15분에는 특집다큐멘터리 '우리들꽃의 독립'을 방송한다. 우리 식물 학명에 숨은 일제 잔재를 밝히고 우리 식물 이름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기획 의도를 내걸었다.

KBS 2TV에서는 광복절 오후 5시 55분부터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 별 헤는 밤'을 방송한다. 운동주의 시를 음악과 함께 재해석하는 내용으로 배우

김영철과 한혜진이 진행을 맡고 가수 이적, 윤형주, 스윗소로우, 다이아믹 듀오, YB, 최백호, 포레스텔라, 백지영 등이 무대를 꾸민다.

MBC TV는 오는 18일까지 '1919-2019 기억록'을 수시로 편성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방송한 '기억록'은 유명인사들이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하는 미니 다큐멘터리로 호평받는다. 광복절 당일 오

후 2시 15분에는 60분으로 편집한 것을 방송하며, 세계적 스트리트 댄서 제이블랙이 대한민국 역사를 담아 선보인 춤의 배경이 됐던 음악 '웬 더 데이 컴스' (When the day comes) 음원도 공개한다.

MBC는 또 광복절 당일 밤 10시 5분 특선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방영한다. 이 작품은 한국인이란 누구나 아는 유관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수궁 생활을

다뤄 개봉 당시 호평받았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험한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일본 우익세력의 신(新)친일파 양성계획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광복절 당일에는 영화 '암살'과 특집 다큐 '연해주에 남겨진 별들', 그리고 '좋은 아침'의 특별 기획인 '100년 만에 찾아온 영웅들의 한 끼' (오전 9시 10분 방송)를 방송한다. 영화 '암살' (오전 11시)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담았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